



이미숙(장신대)

1. 서언

솔로몬 왕의 사후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남왕국 유다에 비해 북왕국은 나라의 통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여로보암은 유다의 정치조직과 통치기술을 모방해 국가 제도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독립해 새 수도를 결정하는 일은 그에게 급선무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세겜에 이어 브누엘¹⁾을 건축하고(왕상 12:25) 다시

* 이 논문은 2019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2018학년도 성지연구원 추계학술대회(2018. 11. 2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개정역에서는 부느엘로 음역했으나 잘못된 음역이다. 히브리어로는 '브누엘'이므로 사 8장에 언급된 부느엘과 같은 장소이다(8:8, 9, 17). 그러나 이곳이 창세기에서 처음 언급될 때 음역은 '브니엘'이다. 본고에서는 수도로서 언급된 왕상 12:25에 따라 '브누엘'로 통일하기로 한다.

디르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왕상 14:17)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수도를 변경했다. 그리고 오므리가 정권을 잡은 후 디르사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천도했다.²⁾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민족의 미래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이다.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오므리처럼 새 나라를 시작하는 왕들이 수도를 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을까? 그들은 수도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했다. 본고는 북왕국의 수도들을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왕들이 꿈꾼 미래를 통해 북왕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문제 제기 및 방법론

여로보암이 자기 시대에 수도를 세 번이나 옮긴 사실과 오므리처럼 이전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미지의 땅 사마리아로 천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왕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수도들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 도시들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빈약하며 세겜과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디르사와 브누엘의 경우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어³⁾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않다.

2) 벤자민 마잘(B. Mazar)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수도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을 꼽기도 하지만 이때도 아합은 사마리아 왕궁에 거주했다는 분명한 언급으로 보아 수도라기보다는 별장 같은 임시 거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왕상 21:1, 18). B. Mazar, *Biblical Israel: State and People*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2), 123. 팔머 로벗슨은 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의 겨울궁으로 본다. O. P. Robertson, *Understanding the Land of the Bible: A Biblical-Theological Guide*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1996), 101-102.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왕국의 수도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할 것이다.

3) 디르사의 위치 확인에 대한 논쟁의 개요는 Dale W. Manor, "Tirzah",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2008), 573-574. 브누엘의 위치 확인 논란에 대해서는 B. MacDonald, *East of the Jordan: Territories and Sites of the Hebrew Scriptures* (Boston, MA: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0), 148-149 참고.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여로보암의 수도 선정과 이전의 원인에 대해 정치, 종교적인 배경을 들어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지그프리트 헤르만(S. Herrmann)은 북왕국의 정권 불안정성을 잦은 천도의 원인으로 보았고 브누엘로 옮긴 것은 시삭의 침입과 연관시켰다.⁴⁾ 마틴 노트(M. Noth)도 시삭의 침입이 브누엘 천도의 원인으로 설명하였지만 브누엘도 디르사도 ‘이상한 이주’라고 하면서 두 수도를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장소라고 평가했다.⁵⁾ 한편 존 브라이트(J. Bright)는 브누엘과 사마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세겜과 디르사의 천도는 이 두 성읍이 비이스라엘계 성읍으로 다른 지파들의 질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설명했다.⁶⁾ 그러나 니엘 알란(N. Allan)은 오히려 세겜이 도피성인 점에 주목하고 여로보암이 친유다 성향인 레위인들이 많은 세겜을 벗어나 방해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무관한 브누엘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⁷⁾ 맥스웰 밀러(J. M. Miller)는 브누엘 건설을 옛 성소의 개혁의 일환으로 본다.⁸⁾

세겜과 사마리아는 구약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자주 언급되었고 고고학적⁹⁾으로나 비평학적인 연구¹⁰⁾로 위치가 확인되고 수도의 면모를

-
- 4) S. Hermann, *A History of Israel in Old Testament Ti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94-197. 또한 군네베크도 같은 견해를 보인다. A. H. J. 군네베크, 『이스라엘 역사』 (문희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150-151.
- 5) 마틴 노트는 세겜을 교통의 이점을 갖춘 수도로, 사마리아를 인근 지역에 대한 전망이 뛰어난 도시인 점을 들어 왕도로서 적합하다는 지리적인 분석을 했다. 그러나 그는 디르사와 브누엘에 대한 위치를 언급했지만 브누엘은 오지라는 이유로, 그리고 디르사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왕도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M. Noth, *The History of Israe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0), 230-231. 두 도시의 위치에 대해서는 231의 각주 1과 3참고.
- 6) 존 브라이트 저, 『이스라엘의 역사 상』 (김윤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1), 372-373.
- 7) N. Allan, "Jeroam and Shechem", *VT* 24. no 3. (1974), 353-357.
- 8)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296.
- 9) A. Parrot, *Samaria: The Capital of The Kingdom of Israel* (Bloomsbury: SCM Press, 1958); R. de Vaux,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J. Murphy-O'Connor,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from Earliest Times to 17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10) E. Nielsen, *Shechem: A Traditio-Historical Investigation* (Copenhagen: G.E.C Gad, 1959);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복원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왕국의 수도들과 이전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는 더 진전이 없고 역사가들은 여로보암의 정책 가운데 부수적으로 다루거나 주석가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¹¹⁾ 마틴 노트처럼 학자들이 디르사와 브누엘의 경우 왕도로서 부적격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시삭 침공이나 다른 정치, 종교적인 원인을 찾도록 이끈 것은 아닐까? 브누엘의 친도를 시삭 침공 이전으로 가정해 볼 수는 없는가? 디르사나 브누엘이 왕도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는 옳은 것인가? 존 그레이(J. Gray)는 1977년에 열왕기 주석서를 통해 북왕국의 수도들에 대해 지리적인 입지조건과 도로를 살펴보고 여로보암의 수도 선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¹²⁾ 그는 브누엘 친도가 시삭의 침입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서도 브누엘은 동요르단의 지배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리적인 접근은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주석서라는 한계로 인해 더 자세한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동안 북왕국의 수도들에 대한 역사 지리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도들과 다른 도시 간의 지역적 연계성과 동요르단 땅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¹³⁾ 북왕국의 수도들을 연구하는 일은 왕들의 대외정책을 규명하고 그동안 간과해 온 동요르단 땅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미약하게나마 구약과 도시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분

11) 이는 여로보암의 수도 건설이 단 한 구절(왕상 12:25)에 불과한 영향이 크겠지만 주석가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다루는 비중과 비교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서술이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주석서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수도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다룬 책들은 다음과 같다. P. R. House, *1, 2 Kings* (Prodman & Holman, 2001), 183; A. H. Konkel, *1 & 2 Kings* (Zondervan, 2006), 245; M. A. Sweeney, *1 & 2 Kings*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75; 시몬 J. 드 브리스 「열왕기 상」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6), 384.

12) 존 그레이, 「열왕기상」 (김진호 외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2), 466-467, 532-533.

13) 19세기 말엽에 조지 아담 스미스(J. A. Smith)는 성서의 역사지리 분야에서는 고전적이고 중요한 저서인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를 남겼다. 그는 이 책에서 사마리아의 수도로서의 입지조건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지만 나머지 수도들은 언급이 적거나 분석이 빈약하다.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Jerusalem: Ariel Pub., 1974), 227-234. 요하난 아하로니(Y. Aharoni)도 북왕국의 수도들과 동요르단 땅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했지만 도로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루었다.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Westminster, 1979), 34, 60.

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¹⁴⁾ 본고에서는 북왕국의 수도들에 대한 지리적 관점이 여로보암과 오므리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스라엘 도시들에 대한 지리적 특징과 자연 지리적 관찰에서 시작해서 수도들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 도로 등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인문지리적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관점은 북왕국의 역사 이해를 위해 새로운 조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사마리아 지역 개관

북왕국의 수도들은 여로보암 때 정해진 세겜과 브누엘, 디르사 세 곳과 오므리에 의해 옮겨진 사마리아까지 모두 네 곳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동요르단에 위치한 브누엘을 제외하고 세 수도들이 입지한 지역을 가리켜 사마리아 지역이라 부르기로 한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고찰에 앞서 구약에는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거나 의미가 바뀌었으

14) 이 분야는 고대도시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성과와 북유럽학자들 중심의 현대 도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 일어났다. 이 경향에 대해 로버트 고든(R. P. Gordon)은 성서의 역사지리학이나 성서 지리학과 구별하여 'Sacred Geography'라고 명명한다. 그는 그것을 "종교와 신학에 기여하기 위한 지리학 학문"으로 정의한다. 고대도시들의 발생 기원 중 하나가 성소 기능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도시들도 종교적, 역사적인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Sacred Geography의 개념과 경향에 대해서는 R. P. Gordon, *Holy Land Holy City: Sacred Geograph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4), 1-4; J. K. Aitken, "Introduction: A City Perspective" J. K. Aitken & H. F. Marlow eds., *The City in The Hebrew Bible: Critical, Literary and Exegetical Approaches*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8), 3-16; B. A. Anderson, "Mapping Narrative Complexity: Textual Geography, Literary Studies and the City in the Hebrew Bible" J. K. Aitken & H. F. Marlow eds., *The City in The Hebrew Bible*, 55-56 참고. 유럽의 성서학자들은 "Bible and Sacred Space"와 관련된 주제를 위해 2005년 학회(EABS)를 결성하고 최근까지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J. L. Berquist & C. V. Camp eds., *Constructions of Space I: Theory, Geography and Narrative* (New York: T & T Clark, 2007); J. L. Berquist & C. V. Camp eds., *Constructions of Space II: The Biblical City and other Imagined Spaces*, (New York: T & T Clark, 2008); J. økland, J. Cornelis de Vos & K. Wenel eds., *Constructions of Space III: Biblical Spatiality and the Sacred* (London, Oxford: Bloomsbury, 2016); M. K. George, *Constructions of Space IV: Further Developments in Examining Ancient Israel's Social Space*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3); G. M. Prinsloo & C. M. Maier, eds., *Constructions of Space V: Place, Space and Identity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New York: Bloomsbury, 2013).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 34 (2009), 126-143.

므로 '사마리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1) 용어 정의

(1) 에브라임 산지

브누엘을 제외한 북왕국의 세 수도들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의 사마리아 천도 이전까지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은 '에브라임 산지'였다. 사마리아 지역과 에브라임 산지를 같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¹⁵⁾ 오므리의 천도 이후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후자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⁶⁾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을 향해 말할 때 처음 나왔다(수 17:15).¹⁷⁾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자손과 관계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아우르는 용어이며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지역 단위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서 요르단과 동 요르단에 각각 세 개의 도피성을 배치하는 본문 가운데서도 암시된다.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겔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수 20:7-8)

에브라임 산지의 용례들은 네 가지 경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브라임 산지가 다른 지명과 함께 나오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예는 세겔이다(수

15) 앤슨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예마 성서지도」(이미숙 역) (서울: 포이예마, 2012), 31-32.

16)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17의 각주 3번;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8-29.

17) 에브라임 산지는 수 17:15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수(19:50; 20:7; 21:21; 24:30, 33), 삿(3:27; 4:5; 7:24; 10:1; 12:15; 17:1, 8; 18:2, 13; 19:1, 16, 18), 삼상(1:1; 9:4; 14:22), 왕상(4:8; 12:25), 왕하 5:22, 대하(13: 4; 15:8; 19:4)등에 나온다.

20:7; 21:21; 왕상 12:25). 세겜의 여호수아의 성읍 딘낫세라(수 19:50; 24:30), 사사 돌라의 출신지 사밧(삿 10:1), 사사 압돈의 출신지 비라돈(삿 12:15), 사무엘의 아버지 출신지 라마다임소빔(삼상 1:1) 등이 에브라임 산지와 함께 언급된다. 그러나 세겜 외 다른 성읍들은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 에브라임 산지의 범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에브라임 산지가 지파 구역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둘째, 에브라임 산지만 나올 경우는 전쟁의 상황에서 북 지파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거나(삿 3:27; 7:24; 14:22) 단순히 어떤 인물의 출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삿 17:1, 8; 18:2, 3; 19:1, 16; 왕하 5:22). 셋째, 에브라임 산지는 베냐민 지역과 구분되는 문맥에서 나타나기도 한다(삿 19:16; 삼상 9:4; 왕상 4:8). 솔로몬의 지방 관장명부들(왕상 4:7-19)은 사실상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구역(4:8)과 베냐민 구역(4:18)은 분리되어 나타난다.¹⁸⁾

넷째, 역대기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 왕국의 북쪽 국경지대를 일컫는 말로 나타난다(대하 13:4; 15:8; 19:4). 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여 빼앗은 영토는 여호사밧때까지 유지되었다(대하 13:4, 19). 역대기의 용례는 에브라임 산지의 지리적 범위와 의미를 더 모호하게 만든다.¹⁹⁾ 여호사밧 이후로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까지 에브라임 산지는 넓게는 북지파의 영역을 가리키거나 북부의 갈릴리 산지, 남부의 유다 산지로부터 구분하는 중부의 산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좁게는 유다의 국경지대를 일컫는 의미로 혼용되다 오므리 왕조 이후에는 북왕국의 전 영토를 의미하는 사마리아로 점차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18) 솔로몬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앤손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129-134와 130의 지도 참고.

19) 에브라임 산지 안에 베냐민 영토가 포함 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이 주제는 논외의 문제라 더 다루기 어렵다. 다만 베냐민 영토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분열왕국시대 이후에는 국경지대가 되었고 남북왕국은 이 지대를 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역대기에서 베냐민 영토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가리켜 에브라임 산지라 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다의 접경지대인 베냐민 영토를 일컬어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른 것은 역대기 사가의 개인적 용어이거나 당시 영토의 현실을 반영한 지명일 수도 있다. 베냐민 땅의 특성과 분열 역사에 대해서는 즐고, 이미숙,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리(수 18:11)” 『성경과 이스라엘』 1 (2018), 32-40 참고.

(2) 사마리아²⁰⁾ 혹은 사마리아 성읍들, 사마리아 산들

사마리아 지역은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사마리아 성읍들'(עָרֵי שַׁמְרֹן/아래 쉬프론)로 처음 나타난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마리아 성읍들은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 때 그를 향해 예언한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시대착오적인 용어에 해당한다.²¹⁾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이 천도한 이후 등장하기 때문이다(왕상 16:24). 이후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를 넘어서 나라나 전체 땅을 대신하는 말로 정착되었고²²⁾ 간혹 '사마리아 여러 성읍'²³⁾이나 '사마리아 산들'²⁴⁾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지역적으로 남부의 에브라임 산지와 북부의 사마리아 산지를 구분한 예도 있다(호 7:1; 읍 1:19).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사마리아는 나라나 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왕하 23:18, 19; 사 36:19; 렘 23:13),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 혹은 유대 지역과 구분하는 용어로 나타난다(스 4:17; 느 4:2). 신약시대에도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북부지역의 갈릴리와 구분되어 사용되거나(눅 17:11; 9:31),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행 1:8; 8:1).

2) 지형과 지질

사마리아 지역은 가나 시내(수 17:9, 이하 나할²⁵⁾ 가나)를 경계로 북부의 므

-
- 20) 여기서는 북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 21) 왕상 13장은 여로보암 왕 때 베엘 제단을 규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무명의 선지자와 무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에서 미래의 인물 요시아 왕도 훗날 베엘 제단을 혁파할 것을 예언하는 문맥 속에 등장하므로 요시아 시대 불렀던 지리적 용어가 왕상 13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리아 성읍'은 요시아 왕에 의해 베엘 제단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왕상 23:16).
- 22) 왕상 21:1; 왕하 1:3; 23:18; 스 4:17; 느 4:2; 사 36:19; 렘 23:13; 호 7:1; 8:5, 6; 10:5, 7; 암 8:14 등.
- 23) 왕상 13:32; 왕하 7:24, 26; 23:19 등. 스 4:10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어이며 큰 지역인지, 한 도시를 가리키는 지 분명하지 않다.
- 24) 렘 31:5; 암 3:9; 4:1; 6:1 등. 읍 1:19은 '사마리아의 들'로 나온다.
- 25) 가나 시내는 히브리어로 נַחַל קָנָה(나할 카나/나할 가나)이다. 나할은 중동지역에서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에 일시적인 하천이 형성되는 특수하천을 가리키는 말로 현대에는 아랍어로 '와디'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는 요단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처럼 상시적으로 흐르는 강은 נָהָר(나하르/강)라 불러 건조 하천(마른 시내)을 가르키는

낮세 지파 땅과 남부의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나뉜다. 사마리아 지역은 산악지대로서 동서 방향의 나할 가나를 경계로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지질적으로도 구분된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속한 남부 지역은 유다 산지와 유사한 강성 석회암(Cenomanian)과 투로니안(Turonian) 지층으로 평균 고도가 800-900m에 이르는 높은 산지 지대이다.²⁶⁾ 실로는 고도가 1000m에 이르기도 한다. 남부 지대는 높은 산지와 동서로 급경사라 산 준령으로만 통행이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방어에는 유리하다. 이에 반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속한 북부 지역은 연성 석회암(Eocene)과 백악암(Senonian) 지층으로 풍화작용이 활발해 낮은 산지(900-400m)를 이루며 동서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이 지역은 개방적인 만큼 방어에는 불리하나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하다. 따라서 북왕국의 수도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므낫세 지파의 땅인 사마리아의 북부 지역은 서쪽으로 여러 나할들이 있어 산지지역으로 올라가는 쉬운 접근로를 제공한다. 서쪽에서 산지로 이어주는 나할들은 나할 도단과 나할 세겜이 있다. 한편 요단강쪽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접근로는 와디 엘 파라(Wadi el Farah)가 있어 디르사와 세겜에 이르게 한다. 사마리아 지역의 서쪽 산지는 포도원, 과수, 곡식 재배에 유리하며 동쪽 산지는 스텝(초원) 지역으로 강수량이 적어 척박하다.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성읍들은 쉬운 접근로를 제공하는 백악암 골짜기들에 위치한다.²⁷⁾ 대표적인 성읍들은 세겜, 디르사, 데베스, 베섹 등이다. 성경의 세겜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로 유명한 야곱의 우물 근처에 있는 텔 발라타로 므낫세 영토의 중심지이다. 세겜으로부터 벨엘-예루살렘에 이르는 족장도로가 이어진다. 디르사는 여로보암 말기부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하기 전

‘나할’과 구분한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나할’이 나올 경우 그것이 하천과 골짜기로 양쪽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히브리어 ‘나할’로, 성경에 없는 지명들은 경우는 ‘와디’로 표기하기로 한다.

26) D. Baly, *The Geography of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164. 이스라엘의 지층 구조의 역사와 산지 지형에 대해서는 E. Orni & E. Efrat, *Geography of Israel* (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 LTD, 1966), 3-13, 49-63 참고.

27) D. Baly, *The Geography of the Bible*, 170-171.

까지 약 40여년간 수도였다. 디르사로부터 와디 엘 파라로 내려가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시작된다. 테베스는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이 살해된 장소이다(삿 9:50-57). 테베스는 서쪽으로 도단에 이르는 도로와 동쪽으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베섹은 사울이 아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돕기위해 지파들을 모은 장소로 이곳에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 강을 건넜다(삼상 11:8). 교차도로가 있는 백악암 골짜기들에 위치한 나머지 성읍들로는 사마리아, 도단, 이블르암 등이 있다.

4. 북왕국의 수도들

1) 고대 수도들의 취락 입지와 유형

인류 최초의 취락은 신석기 시대 농업이 발달하면서 정주생활이 시작되었고, 도시는 고대 근동의 총적 평야지역에서 협동이 필요한 치수, 관개, 농경체계, 생산물 분배를 위한 정치조직과 함께 등장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유역에 큰 도시들을 발생시켰고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 도시들이 세워졌다.²⁸⁾ 가나안 땅은 거대한 두 문명권 사이에 교량적 위치에 놓여있다. 고대근동 문명의 주요 발생지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여기에 가나안 땅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외에는 상시천이 없고 농업보다는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 취락 입지조건이 고대근동의 수도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취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물, 지형적 조건, 방어, 교통 등의 자연환경 조건과 그밖에 문화에 따라 정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취락이 발생한다.²⁹⁾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선호한 정착지가 따로 있었음을 암시한다.

28) 고대 도시의 기원과 유형에 대해서는 L. Mumford,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Penguin Books, 1991), 11-141 참고.

29) 홍경희, 「취락 지리학」(서울: 법문사, 1985), 59-98.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민 13:29)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주로 산지에 정착했다. 그들의 주요 도시와 촌락은 중앙산악 지대에 분포한다. 그들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정착하게 된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물과 방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성석회암 지층은 600m의 단단한 암석으로 침식에 강해 높은 산악지대를 형성하지만 빗물이 침투하면 지하수를 형성하여 샘이 분포한다.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물은 필수적인 취락 조건이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과 블레셋은 이미 철기시대에 진입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 또한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³⁰⁾ 따라서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덜 경쟁적이던 산지는 이스라엘에게 최적의 정착지였던 셈이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말한 장면은 흥미롭다(왕상 20:28).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지에 사는 사람들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부른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을 포함해 수도들은 모두 산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각 수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왕국의 수도들

열왕기에 따르면 북왕국의 시대를 열은 여로보암의 첫 번째 통치행위가 수도를 건설한 일로 나타난다. 여로보암은 세겜과 브누엘을 차례로 건설하고 이어서 북쪽과 남쪽의 국경도시인 단과 벨엘에 각 성소를 세워 남왕국 유다와 차

30) 고대에는 산, 하천, 섬과 같이 방어를 적합한 지형을 택해 취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 그리스 도시 아테네도 구릉지에 있으며 파리와 런던의 기원도 방어와 관계있다. London의 don은 켈트어의 dun, 즉 언덕(hill)을 뜻한다. 독일의 게르만족이 남긴 지명들 중 브룩(brug)으로 끝나는 지명도 구릉지와 관계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성도 방어의 목적에서 발생한 취락이다. 윌글, 64.

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왕상 12:25-33).³¹⁾ 여로보암이 두 수도로부터 새로운 수도인 디르사로 옮긴 사실은 아들의 증병을 낮게 하기 위해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이야기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왕상 14:17). 이후 디르사는 오므리에 의해 수도가 옮겨지기 전까지 약 40여년간 북왕국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이후 부터 멸망 때까지 약 160여년간³²⁾ 수도로서 명맥을 유지했다.

(1) 세겜과 브누엘

① 세겜

세겜은 주전 19세기 이집트 문헌에도 나오는 오래된 도시로 사마리아 산지 지역을 세겜 산으로 언급할 만큼 가나안에서 중심적인 도시였다.³³⁾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은 이미 큰 성읍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땅 약속을 받았다(창 12:6-7). 세겜은 아굽이 아람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정착한 곳이며(창 33:18-20), 요셉의 유골이 묻힌(수 24:32) 유서 깊은 족장들의 도시였다. 주전 14세기 아마르나 문헌은 세겜 왕 라바유가 한때 남으로는 예루살렘과 서쪽의 게셀과 해변도시들은 물론 북으로 므깃도까지 공격해서 왕국을 건설하려다 이집트로부터 저지당한 사건을 전해준다. 도시국가 체제였던 가나안의 역사에서 왕국을 시도한 예는 매우 드물다. 라바유처럼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세겜에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왕국을 건설하려 시도했다(삿 9). 비록 둘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세겜을 기반으로 왕정을 시도했다는 점과 북왕국 시대를 연 여로보암의 첫 수도가 세겜이었다는

31)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정중호, "여로보암 1세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 (1996), 24-44 참고.

32) 이스라엘의 역사 연대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성경의 연대에 가까운 쉴레(E. R. Thiele)의 왕들의 통치연도를 택하여 북왕국의 존립기간을 주전 930-722년으로 보았다. 에드윈 딜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그밖에 다른 연대로는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참고.

33) A. F. Rainey, *A Handbook of Historical Geography* (Jerusalem: American Institute of Holy Land Studies, 1984), 29.

사실은 수도로서 뛰어난 입지를 증명해준다.

이스라엘 땅의 실질적인 정착 한계선을 말해주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240km인데 세겜은 거의 중앙에 위치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지로 볼 수 있다.³⁴⁾ 세겜의 가장 큰 이점은 도로에 있다. 세겜은 중앙산지의 중요한 간선 도로로 브엘세바까지 도달하는 남북방향의 축장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또한 이곳은 동쪽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가장 큰 접근도로인 와디 파라와 서쪽 해안평야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나할 세겜이 만나는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약의 세겜은 현재 텔 발라타(Tel Balata)로 넓은 배후지와 농경지, 수자원을 갖춘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로를 갖추어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수도가 디르사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옮겨 가면서 세겜은 정치적 중요성은 약화되었으나 교차 도로가 지나는 잇점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북왕국의 멸망이후 세겜은 쇠퇴했으나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해 도시기능이 회복되었다. 로마는 텔 발라타로부터 서쪽 배후지로 옮겨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나블루스(Nablus)라고 불렀다. 현대의 세겜은 팔레스틴 도시들 가운데 가장 다음으로 큰 아랍도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② 브누엘

브누엘은 여로보암 왕이 세겜 다음으로 건설한 수도이다(왕상 25:15). 브누엘은 여로보암 재위 초기에 언급된 이후에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 과연 수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설한 지 얼마 안되거나 거의 동시에 브누엘을 건설했다는 점과 브누엘이 다른 수도들과 달리 동요르단에 위치한다는 특이한 점이

34) 이 말은 삿 9:37에 근거한다. 이 구절에 나오는 בְּנֵי הַרְמֵז (타부르 하에레츠/그 땅의 중심)는 번역에 논란이 있다. 문자적으로는 '그 땅의 배꼽'이라는 뜻으로 모호하다. 따라서 현대 번역본들은 '발 가운데서'(개정역), '높은 시대'(새번역), '그 땅의 배꼽'(가톨릭 새번역, NJB), '그 땅의 중앙'(LXX, NKJV)으로 번역하거나 지명(NRSV, TNK)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세겜의 지리적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해당하므로 삿 9:37은 세겜을 묘사하는 구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도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성경에서 브누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유래가 깊은 장소로 처음 알려졌다(창 32:24-31). 브누엘은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는 가운데서 그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세력 중 하나로서 다시 등장한다(삿 8:1-17).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그의 부대에게 줄 식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에 두 성읍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했다. 기드온은 브누엘 망대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살해했다(삿 8:17). 브누엘에 망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요새지였음을 말해주며 숙곳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리더십을 거부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강한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⁵⁾ 여로보암이 재건하기 전까지 브누엘은 파괴된 채 버려지거나 도시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브누엘은 압복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 외에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브누엘이 갓 지파의 기업에 속한 마하나임(수 13:26), 숙곳(수 13:27)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숙곳(텔 데이크 알라)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텔 에드 다합 에쉬 샤르키(Tel edh-Dhahab esh-Sherqiyeh)로 추정된다.³⁶⁾ 압복강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아르묵 강 다음으로 큰 강이다. 강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 암몬에서 발원해서 길르앗 산지를 남과 북으로 가르며 130km를 흐른 뒤 요단강과 만난다. 압복강의 하구에 발달한 주요 성읍들로는 가장 동쪽부터 마하나임, 브누엘, 숙곳이 위치하며 압복강과 요단강이 만나

35) 요한 아하로니는 두 도시의 거절에 대한 이유를 브누엘은 갓 지파에 병합된 가나안 사람들로, 숙곳은 갓 지파 사람이지만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이미 고통받았기 때문에 기드온 부대를 의심했다고 본다.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64.

36) J.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59), 232; M. Noth, *The History of Israel*, 231;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440; J. C. Slayton, “Penuel”, 223. 버턴 맥도날드(B. MacDonald)는 브누엘의 위치가 큰 성소와 발람 텍스트가 발견된 텔 데이크 알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브누엘이 야곱 전승과 관계있다고 해서 종교도시로서 기능했다고 보기는 근거가 미약하다. 브누엘과 텔 데이크 알라를 동일시 하는 견해와 학자들에 대해서는 B. MacDonald, *East of the Jordan: Territories and Sites of the Hebrew Scriptures*, 148-149 참고.

는 곳에 아담 성읍이 있다. 아담은 북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와디 파라, 동으로는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압복강 하구는 동-서요르단 땅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압복강은 동요르단에 정착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길르앗 산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압복강은 길르앗 산지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의 대로(민 20:17; 21:22)와 연결되어 상업적으로 중요한 통로이며 아람과 암몬, 모압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시대에 압복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철제조업 지역(왕상 7:46-47)³⁷⁾으로 솔로몬이 길르앗 지역에 세 명의 각료를 임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왕상 4:13-14, 19).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에 충성했던 길르앗의 행정 중심지, 마하나임 대신에 브니엘을 주목한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2) 디르사

디르사는 여로보암의 수도로 언급되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성읍들 중 하나로(수 12:24) 처음 나타난다. 디르사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 안에 포함된다(수 17:7-8). 사마리아 오스트라카³⁸⁾는 사마리아 산지 북부의 고대 정착지들에 대한 상당한 양의 지리적 정보를 알려준다. 오스트라카에는 므낫세 지파 자손들의 이름과 성읍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에 슬로브핫의 딸 이름 중 노아와 호글라가 있다. 디르사는 이 다섯명의 딸 중 하나로 오스트라카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스트라카에 언급된 호글라의 성읍들이 세겜의 북서에, 노아의 성읍들은 사마리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디르사

37) M. Har-El, *Landscape Nature and Man in the Bible: Sites and Events in the Old Testament* (Jerusalem: Carta, 2003), 37.

38) 1920년대 사마리아의 한 저장고에서 발견된 63개의 도기 파편들을 일컫는 말이다.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는 성읍들 사이에서 행정관리로 추정되는 개인들이 서로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받은 기록이다. 오스트라카의 연대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여로보암 II 시대로 추정된다. 북왕국 말기의 행정 목록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지파별 행정 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성경의 므낫세 지파의 정착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단서이다.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의 개괄적인 정보와 역사 지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56-368 참고.

는 세겜의 동북쪽에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디르사라는 성읍 이름도 므낫세 지파 정착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디르사는 여로보암의 사후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천도하기전 까지 왕권 쟁탈을 위한 쿠데타로 혼란한 시기에 수도였다.

디르사는 중앙산지와 요단강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장 좋은 통로인 와디 파라가 시작되는 텔 엘 파라(Tel el-Farah)가 유력한 후보지이다.³⁹⁾ 경작지를 풍요롭게 해주는 엔 돌레브와 엔 파라라는 두 개의 큰 샘 사이에 텔이 우뚝 솟아 있어 중요한 동서도로인 와디 파라를 지배한다. 또한 중앙 산지의 가장 큰 성읍인 세겜과는 11km 떨어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북으로 베섹을 거쳐 벤산에 이르는 도로의 길목에 있는 요충지이다. 이 도로는 갈릴리 산지에 있는 지파들의 통합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곡창지대이자 국제해안도로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할하기 위해 중요하다. 말하자면 디르사는 세겜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면서도 방어가 용이하고 동쪽과 북쪽 지역으로 접근하기엔 더 유리한 지역이다. 넓은 경작지와 풍부한 샘,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디르사는 주전 7000년전부터 거주지로 선호되었고 주전 3000년경에는 도시화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까지 성벽을 갖춘 가나안 도시였다.⁴⁰⁾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후 잠깐 쇠퇴했으나 주전 8세기까지는 번영을 누린 도시로 이곳에서 발굴된 부자들의 집들과 가난한 이들의 움막집들의 대조는 아모스 선지자의 비관을 연상시켜준다(암 5:10-13).⁴¹⁾

(3)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세겜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585m의 산지이다. 사마리아는 떨어져서 보면 하얗은 산지로 보이나 산지에 올라 신

39) M. Noth, *The History of Israel*, 231; 존 그레이, 「열왕기상」, 532-533;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442; J. Murphy-O'Connor, *The Holy Land*, 504-507.

40) J. Murphy-O'Connor, *The Holy Land*, 504-505.

41) 윗글, 505.

전 계단으로부터 바라보면 이 곳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공경하나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듯 주변 산지들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으로 활짝 트여있어 맑은 날에는 지중해 해안을 볼 수 있다. 오므리가 서쪽을 향해 열려있는 이 산지로 눈을 돌리면서 이곳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지중해 세계로 방향을 틀면서 페니키아⁴²⁾와 교역이 증대되고 문화,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므리와 아합처럼 서쪽으로 눈을 돌린 왕이 한 명 더 있다. 그는 헤롯 대왕으로 로마와의 연대를 위해 다시 사마리아를 필요로 했다.⁴³⁾ 헤롯은 가이사라 항구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해안에서 내륙을 잇는 도로를 지배하려 했다. 헤롯은 사마리아를 요새화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 웅장한 신전을 지어 바친 후 이 도시를 아우구스투스의 헬라식 이름 세바스테(Sebaste)라고 새로 명명했다. 사마리아는 오늘날까지 세바스테라고 불리며 헤롯 대왕때의 유적은 도시의 명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사마리아가 이전 수도들이던 세겜과 디르사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서쪽 지향의 입지조건이다. 이전까지 북왕국의 역사가 동쪽 산지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사마리아는 해안과 바다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해주었다. 사마리아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37km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륙의 중심지이며 교차지점인 세겜까지 10km로 가깝다. 서쪽으로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도단 계곡을 거쳐 이스라엘 골짜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마리아에서 이집트와 다메섹을 연결하는 국제해안도로의 주요 경유지인 해안지역과 이스라엘 골짜기를 동시에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도시의 최대 장점이었다. 사마리아는 개방성이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겜과 디르사보다 방어에도 유리했다. 사마리아를 향한 포위공격에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42) 그리스인들은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해안도시 국가를 일컬어 페니키아라고 불렀다. 해안 도시들 중 두로가 선두 지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도시들의 왕은 시돈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구약에는 페니키아 대신에 '두로와 시돈'으로 언급되거나 각각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널리 알려진 말인 페니키아를 사용하기로 한다.

43)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9.

엘리사 시절(왕하 6:24-25)과 앓수르에게 끝내 멸망당했지만 무려 3년간의 포위공격을 버티어냈다는 기록을 통해 알수 있다(왕하 18:9-10). 사마리아의 뛰어난 경관과 함께 인근에 넓은 비옥한 경작지가 있어 이곳의 풍요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사야는 “영화로운 관갈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라고 묘사했다(사 28:1).⁴⁴⁾

5. 북왕국의 역사와 수도들

지금까지 북왕국 수도들의 각 지리적 입지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한 세겜과 디르시는 동쪽 산지의 중심 도시들로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도로인 와디 파라와 연결된 도시들이다. 브누엘은 압복강 하구의 도시로 길르앗 산지의 방어와 교통에 유리한 지역이다. 브누엘처럼 사마리아도 이례적인 수도로서 해안지대로의 접근이 용이한 서쪽 지향의 입지조건이 두드러진 도시였다. 이러한 수도들의 지리적 조건들은 여로보암과 오므리가 각각 건설하려 했던 새로운 나라와 미래에 어떤 빛을 던져 주고 있는가?

1) 여로보암의 수도들

(1) 초기 정책과 수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솔로몬 왕 때 요셉 지파의 노역을 담당했던 행정관이었다(왕상 11:26, 28).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왕궁 건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한 재건과 군사 도시들, 요새지들을 세워 많은 역군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왕상 9:15-19) 이 과정에서 여로보암도 감동으로 일했던 것이다. 요셉 지파의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와 북부의 므낫세 지파

44) 윗글, 229. 그러나 이사야는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문맥이므로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소개되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쇠잔해 가는 꽃”으로도 묘사되었다.

지역, 동요르단의 므낫세 반지파 지역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역군과 관련해 북지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솔로몬의 미움을 사게 되어 이집트에서 한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그는 솔로몬 아래서 관료로서 행정을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국제 정세를 익히고 돌아와 다시 북지파들의 대표가 될 만큼 정치력도 있었을 뿐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종교적인 명분까지 얻은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역사를 시작하며 수도를 세겜과 브누엘로 정한 것은 그가 역군 감독으로 일한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는 각 지역들의 지형학적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나안은 산지가 많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 도시국가 체제로 이스라엘 이전에는 통일된 왕정을 세워보지 못했다. 산지는 이스라엘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요단강은 동요르단에 정착한 세지파들의 규합을 위해서는 더 큰 장애 요인이었다.⁴⁵⁾ 따라서 왕국 분열 직후 새 나라를 시작하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들의 통합이 당연한 과제였을 것이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중심지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이다. 여로보암이 세겜에 이어 브누엘을 건설한 것은 시삭의 침공과 연관시켜 수도라기보다는 피난처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⁶⁾ 그러나 통일왕정 시대 이래로 압복강 하구 도시들은 주목을 받았다. 다윗과 정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2년 동안 베나민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하 2:8-9, 12, 29). 다윗은 암몬을 치기 위해 요압의 후방 부대를 숙곳에 두었다(삼하 11:11).⁴⁷⁾ 다윗의 시편들이 세겜과 숙곳 골짜기

45) 수 22장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직후 동요르단 지파가 제단을 세운 문제로 인해 서요르단 지파와 갈등이 벌어졌다가 화해한 사건을 말해준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사는 동서 지파 간의 연합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46)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23. 이와 달리 브누엘이 디르사 건설동안 머문 일시적인 거주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296-297; 시몬 J. 드 브리스 「열왕기상」, 384. 그러나 브누엘을 동요르단의 방어와 지배를 위한 수도로 보는 견해도 많다. 존 그레이, 「열왕기상」, 467; P. R. House, *1, 2 Kings*, 183; A. H. Konkel, *1 & 2 Kings*, 245; M. A. Sweeney, *I & II Kings*, 175-176.

47) M. Har-El, *Landscape Nature and Man in the Bible*, 196. 숙곳이 '장막'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보통명사와 지명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역은 '야영'으로 번역했으나 TNK는 숙곳으로 번역했다.

를 함께 언급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시 60:6; 108:7). 솔로몬은 모두 12명의 관장 중에 길르앗 지역에 총 세 명의 관장을 두었고 이중 마하나임에 관장이 있었다(왕상 4:12-14).

여로보암이 브누엘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동요르단 지파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광물 자원이나 가치 있는 삼림 자원이 거의 없어 산업의 주요 수단은 관개가 필요 없는 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압복강 하구 지역은 누비안 사암 지대로 에돔 지역과 함께 철광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었다. 철광 제조를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길르앗 산지에서 삼나무등을 가져올 수 있었고 제련을 위한 진흙을 강 하구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왕상 7:46-47).⁴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룬 막대한 부가 상업의 대동맥인 두 개의 국제도로를 지배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브누엘은 압복강을 통해 왕의 대로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랍과 암몬, 모압, 에돔등의 적대적인 세력을 감시하는데에도 유리했다.

(2) 시삭의 침공과 수도들

여로보암(주전 930-909)이 북 지파들의 통합을 위해 전통적인 중심지 세겜과 압복강 하류 지역의 철광산업을 보호하고 동요르단의 자원 및 교통로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서 브누엘을 수도로 정한 일은 주전 926/925년 시삭의 침입으로 인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수도건설이 시삭 침공 이전이었다고 보는 근거는 시삭이 카르낙 신전에 남긴 정복 도시 목록에 두 도시가 이미 있다는 점과 시삭의 침입 경로 때문이다.⁴⁹⁾ 시삭은 먼저 유다 왕국의 네게브 일대 70개의 성읍을 초토화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나 르호보암의 조공을 받고 물

48) 윗글, 34-39.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길르앗의 삼림과 관계된 유명한 약재로 유향을 언급했다(렘 8:22; 46:11). 에스겔은 유향을 이스라엘이 두로와 교역한 3대 수출품목 중 하나로 소개 한다(겔 27:17).

49) 시삭의 침입 경로는 안손 레이니가 '매우 추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가 재구성한 지도에 따른 것이다. 안손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127의 지도.

러났다. 시삭의 두 번째 목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 그의 군대는 족장도로를 거쳐 세겜, 디르사를 파괴하고 요단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원정 경로가 주목되는 것은 시삭이 디르사에서 곧장 북쪽으로 가면 최종 목적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려했던 목표가 브누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곳에 여로보암이 피신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브누엘이 방어시설을 갖춘 도시였음을 암시하므로 수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삭 군대는 요단강 나루터인 아담을 건너 브누엘 등 압복강 하구 도시들을 휩쓸은 후 다시 뻘산을 향해 북쪽으로 원정을 계속했다. 시삭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한 뒤 애굽으로 돌아갔다.

시삭이 솔로몬 왕국이 분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략한 의도는 분명하다. 솔로몬이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네게브의 요새지들과 성읍들을 파괴해 이집트 방어를 확보하고 왕국 분열로 약화된 두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 여로보암의 수도들은 크게 파괴되었고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다.⁵⁰⁾ 비록 세겜과 브누엘은 더 이상 수도로 기능하지는 못했지만 여로보암은 디르사를 택함으로써 이전 수도들이 맡았던 기능을 최소한 유지하려 했다. 디르사의 최대 장점은 와디 파라를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면 압복강 하구와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리학자 므낫세 하르 엘(M. Har-El)은 와디 파라를 “서요르단과 동요르단을 연결해 주는 가장 좋은 천연 육교”라고 묘사했다.⁵¹⁾ 디르사는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길르앗 산지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와디 파라를 지배하는 본부였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새 수도로 디르사를 택한 것은 그가 추구했던 정책을 포기

50) S. Ahituv, *Canaanite Toponyms in Ancient Egyptian Document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4), 190. 디르사도 시삭의 침공을 받았지만 수도 재건이 가능했던 만큼 많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1) M. Har-El, *Landscape Nature and Man in the Bible*, 196. 아하로니도 와디 파라를 에브라임 산지와 동요르단을 이어주는 가장 좋고 편리한 길이라고 보며 세겜과 디르사가 큰 성읍으로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 설명한다.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34, 60.

하지 않았다는 암시일 수 있다.

2) 오므리의 사마리아 천도

(1) 해변 길과 사마리아

오므리는 에브라임 출신인 여로보암과 잇사갈 지파에서 나온 바아사와 달리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궁을 지은 것이 오므리의 고향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를 잇사갈 지파로 보는 견해⁵²⁾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바아사의 사후 엘라가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하자 병거의 절반을 맡은 군대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오므리는 군대장관으로서 이때 블레셋 경계에 있는 깃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다(왕상 16:17).⁵³⁾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서쪽 해안을 지키는 장군이었던 것은 후일 그가 해변 길과 바다를 향해 눈을 돌린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는 디르사를 포위하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또 다른 경쟁자 디브니의 저항을 받고 6년을 싸워 승리했다.

오므리는 내전을 치룬후 통치의 첫 단계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 사마리아는 국제적인 교류, 특히 북쪽 및 서쪽과 접촉하는데 훨씬 유리한 도시였다.⁵⁴⁾ 해변 길은 이집트-이스라엘-아람-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도로이다. 이 도로는 블레셋을 경유해 게셀, 아벡, 샤론 동부 평야지역을 지나 므깃도 근처의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입한다. 주요 지선은 벤산 근처에서 동쪽으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동편 페헬(펠라 혹은 피흘Fihl)을 통과해 다메섹, 다드몰, 바벨론까지 이른다. 솔로몬이 이 도로를 지배한 사실은 이 도로상에 있는 핵심 연결지역에 강력한 성읍을 건설했다는 구절에 반영되어 있다(왕상 9:15). 오므리보다 90여 년 앞서 솔로몬이 해변 길을 통제한 사실과 두로 왕

52) 앤손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151.

53) 앤손 레이니는 깃브돈을 읍바와 벤 호론 사이에 있는 통로를 지배하기 위해 블레셋과 경쟁한 도시로 본다. 깃브돈은 동쪽으로 게셀과 매우 가까운 텔 멜랏(멜랏)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는다. 윌글, 146-147.

54)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326.

히람과 조약을 맺고 교역을 해서 성공한 정책(왕상 5:1-12)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그에게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2)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오므리가 내전의 짐을 벗고 난 후 대외적인 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이미 동요르단 땅에는 다메섹이 진출해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었다.⁵⁵⁾ 오므리가 다메섹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택한 외교 전략은 두로와의 동맹 정책이었다. 두로는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오므리는 두로 왕⁵⁶⁾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들 아합의 혼인동맹을 성사시켰는데 이는 그의 강력한 해상 정책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마리아와 페니키아의 지리적인 인접성과 친밀성에 대해 조지 아담 스미스(G. A. Smith)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했다.⁵⁷⁾

“사마리아 궁전에서 이세벨은 고향과 그가 고국에서 섬겼던 성상들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에는 아버지의 배들이 반짝이며 항해하고 있었고 두로에서 섬겼던 신들이 그곳에서처럼 영광속에서 안식하기 위해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므리와 페니키아가 동맹을 맺음으로써 서로 얻는 유익은 무엇이였을까? 페니키아는 좁은 해안평야로 경작지가 부족해 일찍이 바다로 관심을 돌려 해상무역을 개척했다. 솔로몬과 히람이 주고 받은 교역 물자는 이스라엘의 밀과 기름, 두로의 목재였다(왕상 5:10-11).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는 곡식과 염색산업이 발달한 페니키아에 털과 양

55) 앤슨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151.

56) 옛 바알은 시돈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왕상 16:31) 에베소의 역사가 메난더(Menander)의 왕들의 목록에서는 두로 왕으로 나타난다. 위의 책, 146.

57)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8.

모를 수출할 수 있었다(왕하 3:4).⁵⁸⁾ 그리고 이스라엘은 페니키아로부터 상아 장식품 같은 사치품과 지중해 세계의 다른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⁵⁹⁾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종교기관일 뿐만 아니라 재정 기관이었으며 양국의 밀접한 상업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⁶⁰⁾ 오므리와 아합이 페니키아와 동맹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얻은 막대한 부와 국제적인 명성은 성경보다는 앗수르의 비문들에서 입증되었다.⁶¹⁾

6. 결론

지금까지 북왕국의 역사를 열었던 여로보암의 수도들과 오므리의 사마리아 천도를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나 비전을 반영한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수도를 북쪽의 예루살렘으로 천도함으로써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실질적인 통일 왕정 시대를 열었다. 여로보암은 동쪽 지향의 수도들을 택해서 동요르단 땅의 지배와 통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왕국의 왕들은 다메섹과 경쟁을 하기도했지만 멸망 때까지 동요르단은 그들의 영토로 유지되었다. 여로보암 II의 아라바(요단 계곡) 회복(왕하 14:25)과 북왕국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살룸(왕하 15:10)⁶²⁾과 베가(왕하 15:25)가 길르앗에 기반을 둔 세력이었다는 사실

58) 오므리와 아합은 털과 양모를 동요르단 땅, 특별히 모압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메드바에서 발견된 메사 왕 비문에서 이들로부터 40년간 지배받았다가 해방되었다는 왕의 말을 통해 뒷받침 된다.

59) 앤슨 레이니/스티븐 니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152.

60) 윌슨, 153.

61) 살만에셀 III의 오벨리스크에서 예후 왕은 ‘오므리의 아들’로 소개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로 알려졌다. 주전 853년경 살만에셀 III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원정을 단행하자 앗수르를 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람이 주도한 연합국이 오펜테스 강변에 있는 과르파르에서 전쟁을 벌였다. 여기에서 아합은 전차 2,000대와 민병의 보병을 파병한 군사대국으로 비문에 기록된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326-329 참고.

62) 살룸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 살룸은 아베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아베스를 지명으로 본다면 아베스 길르앗 출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J. Gray, *I & II Kings*, (SCM Press Ltd.,

은 역대 왕들의 이 지역을 향한 관심을 반영한다.

오므리는 해안과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던 페니키아와 교류해 솔로몬에 버금가는 번영과 국제적인 명성을 이루었다. 오므리가 서쪽 지향의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로보암처럼 동요르단 지배와 안정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는 내륙의 산지이면서도 해안에서 멀지 않아 오므리의 대외적인 전략과 정책을 펴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오므리의 사마리아 천도이후 사마리아는 곧 북왕국의 자랑이요 힘의 근거였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달리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배신해 멸망한 나라,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상징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왕은 북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강대국의 꿈을 달성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배교와 혼합종교로 이끈 악한 왕의 대표들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수도 선택에서 나타난 그들의 새 나라를 향한 정책과 꿈은 잊혀지거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7. 참고문헌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 34 (2009), 126-143.

A. H. J. 군네백 저, 『이스라엘 역사』 (문희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J. 맥스웰 밀러/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9).

에드윈 딜레 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앤손 레이니/스티븐 나틀리, 『포이에마 성서지도』 (이미숙 역) 서울: 포이에

1980), 621.

www.kci.go.kr

- 마, 2012).
- 이미숙,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수 18:11)”
「성경과 이스라엘」1 (2018), 32-40.
- 정중호, “여로보암 1세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 (1996), 24-44.
- 존 그레이, 「열왕기상」(김진호 외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존 브라이트 저, 「이스라엘의 역사」(김윤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1).
- 시몬 J. 드 브리스 「열왕기 상」(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6).
- 홍경희, 「취락 지리학」(서울: 법문사, 1985).
- Aharoni, Y. *The Land of the Bible* (Westminster, 1979).
- Ahituv, S. *Canaanite Toponyms in Ancient Egyptian Document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4).
- Aitken J. K. & Marlow, H. F. eds., *The City in The Hebrew Bible: Critical, Literary and Exegetical Approaches*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8).
- Allan, N. “Jeroboam and Shechem”, *VT* 24, no 3. (Jul 1974), 353-357.
- Baly, D. *The Geography of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 Berquist J. L. & Camp C. V. eds., *Constructions of Space I: Theory, Geography and Narrative* (New York; T & T Clark, 2007).
- _____, *Constructions of Space II: The Biblical City and other Imagined Spaces*, (New York; T & T Clark, 2008).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George, M. K. *Constructions of Space IV: Further Developments in Examining Ancient Israel' Social Space*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3).
- Gordon, R. P. *Holy Land Holy City: Sacred Geography and the Interpretation*

- tion of the Bib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4).
- Gray, J. *I & II Kings* (SCM Press Ltd., 1980).
- Har-El, M. *Landscape Nature and Man in the Bible: Sites and Events in the Old Testament* (Jerusalem: Carta, 2003).
- Hermann, S. *A History of Israel in Old Testament Ti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House, P. R. *1, 2 Kings* (Prodman & Holman, 2001).
- Konkel, A. H. *1 & 2 Kings* (Zondervan, 2006).
- MacDonald, B. *East of the Jordan: Territories and Sites of the Hebrew Scriptures* (Boston, MA: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0).
- Manor, Dale W. "Tirzah"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2008).
- Mazar, B. *Biblical Israel: State and People*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2).
- Mumford, L.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Penguin Books, 1991).
- Murphy-O'Connor, J.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from Earliest Times to 17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Nielsen, E. *Shechem: A Traditio-Historical Investigation* (Copenhagen: G.E.C Gad, 1959).
- Orni E & Efrat, E. *Geography of Israel* (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slations LTD, 1966).
- økland J., Cornelis de Vos J. & Wenel, K. eds., *Constructions of Space III: Biblical Spatiality and the Sacred* (London, Oxford: Bloomsbury, 2016).
- Parrot, A. *Samaria: The Capital of The Kingdom of Israel* (Bloomsbury: SCM Press, 1958).

- Prinsloo, G. M. & Maier, C. M. eds., *Constructions of Space V: Place, Space and Identity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New York: Bloomsbury, 2013).
- Rainey, A. F. *A Handbook of Historical Geography*. (Jerusalem: American Institute of Holy Land Studies, 1984).
- Robertson, O. P. *Understanding the Land of the Bible: A Biblical-Theological Guide*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1996).
- Simons, J.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59).
- Slayton, J. C. "Penuel",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2008).
- Smith, G. A.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Jerusalem: Ariel Pub., 1974).
- Sweeney, M. A. *I & II Kings* (Louisville, London: John Knox Press, 2007).

지도

- Picard, L. Y. & Golani, U., *Geological Map: Northern Sheet*, 1992.
- Survey of Israel, *Judaea. Palaestina: Eretz Israel during the Hellenistic, Roman and Byzantine periods*, 1:250,000, 1993.
- The Survey of Israel, *Israel-Touring Map*, 1:250,000, Feb. 1986.
- Frank, H. T. & Monson J. *Student Map Manual: Historical Geography of the Bible Lands*, Jerusalem: Pictorial Archive(Near Eastern History) Est., Mar. 1983.
- Cleave, R. L. W. *The Holy Land: Satellite Atlas vol. 1, 2*. Røhr Productions, 1999.

검색어

여로보암

오므리

북 왕국

세겜

디르사

브누엘

사마리아

A History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Its Capitals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Mi-Sook LEE Th. D

Assistant Professor, Old Testamen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schism of the united Kingdom right after Solomon's death set Israel along a totally different historical path. Jeroboam could establish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on the model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but to choose a new capital was the most urgent task for him. Jeroboam moved the capital from Shechem to Penuel and again to Tirzah during his reign. Omri, unlike former kings, also transferred the capital to Samaria, which did not exist until its being established by Israel. Events of this nature had been very unusual in the history of Israel. Although the transfer of capitals in the northern Kingdom is very important,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and their conclusions about these transfers have not been useful.

www.kci.go.kr

Especially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Tirzah and Penuel, historians have considered these movements to be strange and unsuitable. To choose a capital reflects a national policy and vision.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apitals of the northern Kingdom with a geographical approach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reasons and background for their transfer. As a result of this study, now we can state confidently that those movements were not strange but suitable transfers that Jeroboam made to concentrate on eastern-oriented cities in order to control the Transjordan land and to integrate its tribes.

Omri turned his eyes toward the coast and the sea. He chose Samaria as a base to cooperate with Phoenicia which had monopolized the coastal trade in the Mediterranean. Samaria was located inland not far from the coast and was the best place for Omri to develop his foreign policy and strategy. He accomplished prosperity and fame fo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fter Solomon. Jeroboam and Omri founded a national base and succeeded in making the state rich and powerful. They, however, were denigrated as vicious kings because of their leading Israel to betray God and to bring the religion of Israel to a form of syncretism. Therefore, their dream and policy for a new nation reflected in the transfer of the capital was subsequently forgotten or devalued.

Keywords

Jeroboam

Omri

the northern Kingdom

Shechem

Tirzah

Penuel

Samaria

- 투고일: 2019년 1월 1일
- 심사일: 2019년 2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3일

www.kci.go.kr